단체간 '불신의 벽'…5·18 공법단체 설립 무산

대의원 수·정관 제정시기 이견…각종 사업 이해관계 얽혀 부상자·구속자회, 개별 공법단체 추진…유족회는 부정적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3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 화합과 대동의 단일 단체로 만들려는 통합 5·18 공법단체 설립이 무산됐다.

5·18 유족회가 5·18 통합 공법단체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는 개별 공법단체를 추진중이다. 이중 부상자회는 단체별로 공법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구속부상자회는 자신의 입장을 뜻을 같이하는 두 단체 일부 회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공법단체를 꾸리려는 계획이다.

5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 5월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바랐던 시도민 들의 염원이 물거품 되면서 안팎에선 비난 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3개 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법단체 추진을 선언했으나, 수년 간 대의원 수와 정관 제정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법단체 추진이 없던 일로됐다.

이에 따라 5월 관련단체들은 각 단체별 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뒤 제 갈 길을 가 고있다.

부상자회는 각 단체별로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9 관련단체는 공법단체가 3개인데, 5월 관련단체만 3개의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5월 관련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5·18 민주유공 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탈 퇴를 선언한 뒤, 유족회와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과 함께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입 법을 추진 중이다.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공법단체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 러낸 만큼 단독으로라도 공법단체를 설립 하겠다는 의도다.

유족회는 두 단체의 행보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단체가 지난 1981년~1984년 잇따라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시대에 맞는 5월 정신을 구현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결국 단체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체마다 추진 사업의 성격이 크게 다르고, 이해 득실에 따른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어렵기때문이다.

5월 단체가 공법단체설립을 추진하면서 각 단체별 대의원 수와 정관제정시기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것도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의 이해 관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24일 광주시 북구 경열사 부근 야산에서 열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참가한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원들이 동물 이동로에 배추·고구마·옥수수·콩 등을 뿌려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우여 장관, '국민눈높이' 수능 개선안 강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24일 정부 서울청 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3월까지 수능 문항출제를 개선하고 난이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개선위원들의 전문적 시각과 자문위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함께 제시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개선위원과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개선위 명단 7명을 발표했고 교육·법조·언론계 등의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수능개선자문위를 발족했다. 수능개선위는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를 빚은 수능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조현아 사전 구속영장 청구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 지검 형사5부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 로 했다. /연합뉴스





〈사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헉! 청동검 보험금만 5000만원

국립해양문화재研 해상교류 전시 30cm '요녕식 동검'

30cm도 못되는 낡은 청동검이지만 보 험금만 5000만원.

24일 국립광주박물관에 따르면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진행중 인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 지역의 바닷길' 전시를 통해 소개된 청동형 동 검인 '요녕식(遼寧式) 동검'의 보험 평 가액은 5000만원으로, 함께 전시하는 다른 유물(27점) 중 가장 높게 책정됐 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서남해 지역 패 총(貝塚·조개더미)과 고인돌에서 발굴 된 유물을 중심으로 기획특별전을 마련, 전시를 열고 있다.

전시를 할고 있다. - 요녕식 동검은 중국 요녕지방에서 출 토되는 경우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서남해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는 극히 이 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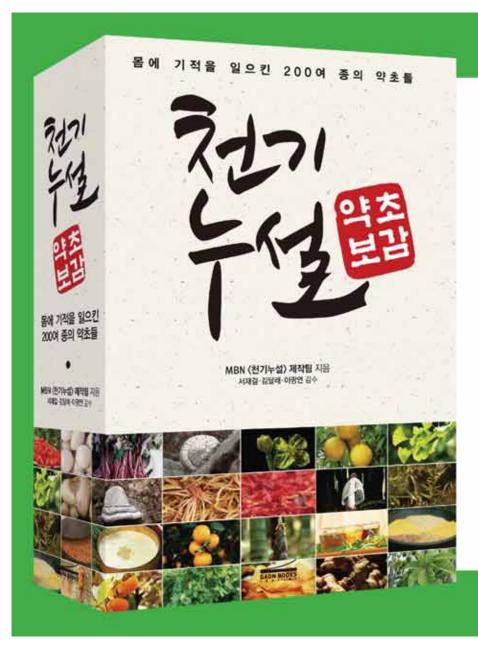
한반도에서 출토된 비파형 동검의 경우 대부분 조각 형태로 발굴되는 탓에 복원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원 뒤운송 과정 등에서 훼손 가능성도 크다는 게 국립광주박물관측 설명이다.

이외 전시되는 지난 2007년 여수시 안도 패총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빗살무니 토기인 압날문 토기도 1000만원의 보험가가 책정됐다.

두 유물값이 26점 전체 보험평가액(6800만원)과 맞먹는셈이다.

기원 첫 기는 함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결・김달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

DAON BOOKS